

6월 IT수출 백억달러 회복

지난 IT 수출은 '07.6월 ~ '08.10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08.12월에는 65.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나타냈음. 이후 환율 효과 및 우수한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IT수출은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 6월 IT수출이 101.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산업 주요 3대 수출품목인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모두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IT 수출이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IT수입은 전자부품 32.5억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5.8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7.1% 감소한 53.5억 달러이며, IT수지는 '08.11월 이후 최대흑자액인 48.2억 달러를 기록했다.

'09년 상반기 IT 수출은 불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전년 동기대비 22.9% 감소한 52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143.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 반도체(118.8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110.6억 달러, 전년 동월대비 14.5% 감소) 등은 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신제품의 판매호조, 패널 가격 안정 등으로 점차 회복 추세이다.

상반기 IT 수입은 전자부품 168.2억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34.3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7.2% 감소한 280.9억 달러이며, IT 무역수지는 전산업 수지 흑자 218.9억 달러를 상회하는 24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 IT 수출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패널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3G 통신서비스 본격화, DDR3 D램의 채용 비중 확대, 해외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의 대외적 여건과 국

내 IT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는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 25.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7.4% 감소

전세계 휴대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교체 수요 부진으로 시장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내 업체의 적극적 마케팅 및 신제품 출시로 시장 점유율은 향상됐다. 다만,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의 고성장(20.2%)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럽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4% 감소했다.

(지역별) 폴 터치폰 등 신규 모델의 선전과 경쟁사의 부진으로 미국(7.6억 달러, 17.8%) 수출은 증가했으며, 일본(0.6억 달러, 85.2%) 수출도 호전됐다.

반면, EU(4.9억 달러, △32.4%), 남미(1.0억 달러, △29.9%) 수출은 부진하였고, 중국(홍콩포함, 7.3억 달러, △4.0%)은 완제품 수출(1.3억 달러, 21.1%)은 증가했으나, 최근 국내 생산 비중 확대(프리미엄폰 판매 호조 영향)로 인한 부분품 수출(6.0억 달러, △8.1%) 감소로 역성장했다.

반도체 : 25.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3.0% 감소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6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금액	27.1	29.5	27.8	32.5	37.6	24.0	16.3	21.9	23.7	23.9	24.4	24.9	25.1
(증감률)	(20.2)	(21.8)	(20.2)	(39.6)	(13.6)	(△25.5)	(△17.4)	(△21.7)	(1.4)	(△21.3)	(△18.4)	(△11.1)	(△7.4)

D램 가격은 업계의 감산으로 개선되었으나, D램 수출은 PC 시장의 수요 견인 본격화가 지연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33.5% 감소한 6.9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6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반도체	32.7	32.0	31.0	29.4	25.2	19.4	15.3	15.0	15.4	18.1	21.1	24.0	25.2
	(2.3)	(Δ5.9)	(Δ12.9)	(Δ10.5)	(Δ26.1)	(Δ44.1)	(Δ49.9)	(Δ46.9)	(Δ40.6)	(Δ38.4)	(Δ26.2)	(Δ22.1)	(Δ23.0)
메모리	17.5	17.3	16.8	14.5	11.4	9.1	7.3	7.2	7.9	8.7	9.8	11.5	12.4
	(Δ6.0)	(Δ13.0)	(Δ21.0)	(Δ24.2)	(Δ39.5)	(Δ50.3)	(Δ53.8)	(Δ48.9)	(Δ42.3)	(Δ45.2)	(Δ37.5)	(Δ32.8)	(Δ28.9)
D램	10.4	10.8	10.9	8.5	6.2	5.1	4.8	4.4	4.4	5.0	5.3	6.3	6.9
	(6.2)	(1.9)	(Δ2.0)	(Δ8.0)	(Δ23.8)	(Δ31.7)	(Δ29.4)	(Δ36.8)	(Δ38.5)	(Δ41.2)	(Δ37.4)	(Δ34.0)	(Δ33.5)
낸드	2.4	2.3	2.0	1.7	1.3	1.1	0.8	1.0	1.1	1.3	1.4	1.7	1.6
	(Δ15.1)	(Δ26.4)	(Δ47.8)	(Δ47.3)	(Δ56.0)	(Δ66.4)	(Δ76.5)	(Δ65.4)	(Δ60.2)	(Δ42.5)	(Δ37.6)	(Δ30.6)	(Δ31.9)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 최근 PC 시장은 넷북(저가 저사양 노트북)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D램 수요 감소 현상이 심화

* 보통 PC 1대당 2GB이상의 D램을 주로 사용하나, 넷북은 1GB 등 저사양 D램 사용이 일반적

한편, 낸드플래시는 하이닉스, 도시바 등 주요 업체의 가동률 회복과 가격 하락 반전으로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1.9% 감소한 1.6억 달러로 '08.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11.3억 달러, Δ23.0%), 미국(1.8억 달러, Δ19.6%), 일본(2.8억 달러, Δ15.0%), EU(1.6억 달러, Δ30.6%) 모두 감소했다.

패널(부분품 포함) : 22.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

패널 수출은 패널 가격 상승, 낮은 재고 비율과 중국(가전하향의 전국 확대) 등 각국의 소비 진작에 힘입어 4.0% 증가한 22.4억 달러를 기록했다.

'08.11월 패널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여파와 패널 업체의 재고 등으로 '06년 수준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패널업체의 지속적인 재고조정에 따른 유통 재고소진, 패널가격 하락의 진정, 전방산업인 TV 및 넷북 등의 성장으로 패널 수출 호조했다.

*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달러) : ('09.1) 325→(2) 325→(3) 323→(4) 320→(5) 320→(6) 333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26.9%), 동유럽(27.8%) 등 주요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했다.

【 패널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6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금액	21.6	23.8	23.6	25.3	24.1	18.5	12.3	12.4	15.0	19.4	20.3	21.1	22.4
(증감률)	(39.7)	(37.3)	(115.4)	(27.4)	(3.6)	(Δ18.6)	(Δ41.2)	(Δ40.8)	(Δ24.1)	(Δ12.7)	(Δ8.6)	(Δ7.1)	(4.0)

칼라 TV(부분품 포함) : 3.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6.5% 감소

TV부분품(3.3억 달러, Δ24.0%) 수출 둔화로 칼라 TV 수출은 감소했다.

* LCDTV가격(42인치, 달러) : ('08.12)1,042→('09.1)1,033→(2)1,007→(3)926→(4)961→(5)983→(6)985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Δ51.1%), 멕시코(Δ34.9%), 헝가리(Δ37.0%) 등 주요 생산 거점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기타

프린터(0.6억 달러, Δ11.7%), HDD(1.0억 달러, Δ23.1%)등은 부진했으나, 세탁기(0.5억 달러, 34.6%), 디지털방송의 확대로 셋탑박스(0.6억 달러, 8.2%) 수출은 선진했다.